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0일 (음력 8월 1일) 월요일

기록적 폭염에 골프장 '울고' 수영장 '웃고'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로 실외 레저시설인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이용객과 수익 모두 감소한 반면 수영장 등 실내시설은 호황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수익시설의 수지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수익이 줄었고, 수영장과 빙상장은 이용객과 수입 모두 증가했다.

광주도시공사, 주요 수익시설 수지분석 결과 골프시설 이용객-수익 모두 감소, 실내 상승

빛고을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1억 2700만원이던 수입이 올 상반기에는 19억

8800만원으로 6.5% 감소했다. 이용객도 21만9726명에서 20만2944명으로, 1만6782명, 비율로는 7.6% 감소했다.

연주골프센터도 상반기 수입이 지난해 5억3400만원에서 4억7600만원으로 10.8% 줄었고 이용객도 10만9934명에서 10만4409명으로 5525명(5.0%) 줄어들었다.

상무골프연습장은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지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운영수익은 25%나 감소했다. 이용객도 4200여명이나 줄었다.

공공시설팀에서 운영하는 황금주차장도 이용객이 12%(1만8800여명) 가량 줄었다.

반면 위탁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은 이용객이 22만4447명에서 26만1704명으로 20% 가

까이 증가하면서 수입도 10억7000만원에서 11억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실내 빙상장도 5만2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으로 7% 가량 이용객이 늘어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아외와 실내 체육시설의 희비가 엇갈린 데는 최악의 폭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사측은 보고 있다.

실제 올 여름(6~8월) 광주·전남의 폭염 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6일과 26.7일로 기상청이 공식통계를 작성한 1973년 이래 최고 기록이다.

특히 광주는 같은 기간 폭염일수가 43일을 기록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반기만 놓고 보면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시설은 이용객 증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며 "아무래도 폭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밤하늘 가득 찬 여수밤바다 불꽃 8일 오후 여수시 이순신관광 앞 해상에서 '2018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화려한 불꽃이 돌산대교와 이순신대교 사이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

전남 내년 상수도 확충 국비 1517억원 확보

전남도는 2019년 상수도 확충사업에 올해(843억 원)보다 674억 원 늘어난 1517억 원의 국비를 확보, 도서지역 식수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이라고 9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이 607억 원에서 663억 원으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 97억 원에서 502억 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139억 원

노후상수관망 블록화와 관망 교체 및 정수장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수율을 85%로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누수 차단으로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제한급수를 실시했던 완도 등 일부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관정 개발, 해

전남도, 올해보다 674억원 늘어...섬 식수난 해소 기대 노후상수도 시설 정비·도서지역식수원개발 집중 투자

에서 352억으로 각각 증가했다.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놓여온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정수장 고도처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으로 추진된다.

2019년에는 생활형 SOC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 시설 정비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에 집중 투자해 지역의 먹물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노후상수도 시설정비 사업은 기존 6개 군에서 11개 군으로 확대해

저관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서지역 식수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고 지원을 건의하고, 지방 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2019년 예산에 대해 반영됐다"며 "도서지역 식수난 완전 해소와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로 도민 물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정계개편의 출발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손 대표와 함께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유승민 바른미래당전 대표를 언급하며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 그 진보를 싫어한다"며 "유 전 대표가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지 않지만 보성향의 손 대표와 보수성향 유 전 대표가 추후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이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치를 크게 한번 흔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게 흔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손 대표가 정치판을 크게 흔들 것이라며



에 시당 초내와는 잘 안 맞아



박지원 의원은 예언가 같더라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湖南新聞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백제회관 문정남	승일식당 박김경갑우테	새마을시장 김기진	담양군재향군인회 하영	담양군산림조합 김진호	담양축산농협 김명식	무정농업협동조합 나승수	수북농업협동조합 박근석	월산농업협동조합 윤종섭	창평농업협동조합 정원실	농협은행군한지부 대우	한국전력공사담양지사 김기석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 정성래	담양군의회 정철원	담양군수수조치용형익식
----------	-------------	-----------	-------------	-------------	------------	--------------	--------------	--------------	--------------	-------------	----------------	-----------------	-----------	-------------